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 225-242
<https://doi.org/10.29212/mh.2021..120.22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국제관계의 구조 속에서 임진전쟁을 재조명하다

- 김문자 저,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

김경태*

1.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임진전쟁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인가? 여러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한중일 삼국으로 범위를 넓혔을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일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자는 바로 그이며, 그의 죽음으로 인해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다. 임진전쟁을 다룬 저작은 무수히 많지만, 적어도 한국의 연구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혹은 그 정권을 부각한 예는 많지 않다. 이를 감안하면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이 전쟁을 국제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책을 내면서」에서 전쟁 중에 전개된 강화교섭에 대해

* 전남대 역사교육과 조교수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외교사적 측면에서 전쟁의 실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세 나라 사이에 강화교섭이 진행되고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으며, 왜 교섭이 성공하지 못하고 재침략으로 이어졌는지 살피고, 나아가 전쟁이 끝난 후의 국교 재개 문제와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어떠했는지도 검토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저자가 임진전쟁을 넓고 길게 조망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 책은 임진전쟁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자가 임진전쟁에 관해 저술한 총 17편(서장과 종장 포함)의 글을 실고 있다. 서장은 「히데요시는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라는 문제제기를 비롯하여 임진전쟁 연구의 동향과 관련 일본자료의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어서 1부 「전쟁의 서막과 강화교섭」에서는 전쟁 직전의 교섭에서 전쟁 발발 후 이루어진 교섭의 전말을 다루고 있다. 2부 「자연재해와 정유재란」에서는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된 원인에 대한 다면적인 연구를 실고 있다. 3부 「전쟁 종결과 국교 재개」는 전쟁 이후 조선과 일본의 새 정권인 에도 막부의 국교재개,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관해 살피고 있다. 4부 「전후 처리와 전쟁의 상처」에서는 전쟁사 서술에서 자칫하면 지나칠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장 「명분 없는 전쟁의 종결」을 통해 저자가 이 전쟁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기준에 출간된 임진전쟁 관련 저작들은 일부 비전문적인 저술을 제외하고, 전쟁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완결성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한정된 문제의식, 한정된 사료에 입각해서는 전쟁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이 책은 전쟁 원인론에서부터 강화교섭의 전말과 전쟁의 종결, 그리고 전쟁 이후 양국

관계와 후대의 인식까지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시대사적으로도 완결성을 갖추었다는 면에서 높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연구사적으로 가장 최근 단계의 연구가 종합되어 하나의 서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역사는 인과를 밝히는 학문이기도 하다. 어떤 사건에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은 역사학의 의무이다. 임진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고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분야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론에 반론 가능성이 막혀있다면, 혹은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일 것이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전쟁 원인에 대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해석이 일반적이었고, 전쟁의 결과론도 일종의 자학 논리에 묻혀 있었다.

전쟁은 다양한 국내외적 배경이 집적된 후, 한 번의 방아쇠가 당겨져 발생하는 것이다. 전쟁 원인은 보다 넓은 시야에서 전쟁을 바라보기 위해 중요한 주제이며, 따라서 가설과 논의의 폭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 근래에는 임진전쟁을 국제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려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학계에서 그러한 경향을 이끈 연구자 중 한 명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이다. 이 책의 서장에서도 임진전쟁 원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한일 양국학계의 여러 원인을 소개한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이라는 군사적인 긴장 조건 속에서 군역동원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을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히데요시가 침략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시간 순으로 꼼꼼히 짚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침략이 망상에서 비롯된 선언적인 것이 아

나라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¹⁾ 요컨대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침략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전쟁사 연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임진전쟁 연구와 사료의 문제

전통시대 국제관계 연구에서 학계 간 교류가 항상 활발한 것은 아니다. COVID19 이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직접 만나 교류할 기회는 당분간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만남의 빈도와 교류의 실효성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교류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교류의 다리로서 언어가 중요하며, 역사학에서는 상대의 사료를 해독하는 소양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쟁사와 같은 관계사는 어느 한쪽의 사료만으로 완결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전쟁 자체가 첨예한 갈등의 장이었던 만큼 자칫하면 특정 사료만을 근거로 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만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임진전쟁사는 “민족의 치욕”이자 “국난극복”을 상징하는 역사로서, 일국사적 해석이 각광받는 추세 속에 한정된 사료만으로 완결성을 갖추고자 하는 “지적 게으름”이 다소 관측되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물론 서로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는 여러 사료를 동시에 분

1) 저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발언에서 목격되는 공명심과 명예욕이라는 요소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공명심과 명예욕은 전국 시대를 거치며 무력으로 일본을 장악한 히데요시의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석하고 그 사이에서 역사적 사실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라면 그 어려움을 돌파해야만 한다.

이 책은 서장에서 「임진전쟁 관련 일본 자료」라는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임진전쟁 연구를 위한 일본자료를 현존 현황 및 분류부터 활용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주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사료를 사용하여 임진전쟁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최초의 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이후 한국학계의 젊은 연구자들이 일본의 사료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그리고 일본 학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서평을 쓰고 있는 필자 역시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 책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글에서 임진전쟁 연구에서 일본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그 실제 활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사료에 둔감한 관련 연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물론 이 경종은 조선 사료를 이용하지 않는 일본 연구자들의 위에도 울려야 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한 개별적 연구를 넘어, 학계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사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방대한 사료의 정리 작업은 소수의 연구자들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책을 계기로 사료 정리 사업의 첫 걸음이 옮겨지기를 바란다.

3. 국제관계사로서의 임진전쟁 연구

- 전쟁의 다른 면, 강화교섭

이 책은 임진전쟁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이 전쟁을 일국사적 시

각이 아닌 국제적인 시야에서 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왜란’이라는 용어는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든 이 전쟁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임진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든 국제전쟁’이라는 시각이 담겨있다고 하였다.

역사적 사건을 살펴볼 때는 그 사건과 관련한 모든 배경을 확인해야만 한다. 저자는 이 전쟁의 실제 전투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5년여는 강화교섭이 전개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 강화교섭은 그저 전투가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시작했던 것일까. 교섭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고, 교섭을 담당할 인물은 어떤 이력을 지닌 이들이었을까. 제1부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다. 여기서는 전쟁 기간 동안 벌어졌던 강화교섭을 다양한 주체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면이 모여 하나의 입체적인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시마이 소시쓰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임진전쟁을 전후한 시기 규슈 지역에서 활동하던 상인이다. 일본의 상인이 왜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 전쟁에서는 항상 전투와 교섭이 교차한다. 임진전쟁 직전부터, 전쟁 기간, 전쟁 이후에 이르기까지 교섭은 항상 존재했다. 교섭의 맨 윗줄에는 나라가 존재한다. 그러나 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두 나라 사이의 입장 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를 조율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이들 중에는 바로 시마이 소시쓰와 같은 상인들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시마이 소시쓰가 통신사 파견을 위한 해적 송환 문제에 관여하였고, 이후에도 전쟁을 늦추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부각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료를 사용하여 일본 인물에 접근한 연구를 통해 우리

는 조선이 1590년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기까지 어떤 교섭이 이루어졌는지, 나머지 절반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전쟁 중의 강화교섭은 공식적으로 명과 일본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은 당초 강화교섭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결국 교섭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글에서 저자는 조선이 일관되게 교섭을 반대했다는 견해에 반론을 제기한다. 즉 조선이 필사적으로 전투에 임하면서도 강화교섭이 전쟁을 유리하게 종결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교섭에 대처했고, 그 배경에는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대의명분과 함께 선조의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었다고 하였다.

세 번째 글은 조선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장면 중 하나를 보여준다. 의승장이었던 사명당 유정과 가토 기요마사의 교섭이다. 사명당 유정은 세 차례나 기요마사와 직접 만나 교섭을 하였고, 임진전쟁 이후에도 일본에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만났던 인물로, 일반적으로는 설화적인 에피소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설화적인 면을 소거하더라도 그의 활동은 분명 놀라운 지점들이 많다. 저자는 왜 그러한 장면이 만들어졌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에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왜 관인이 아닌 그가 교섭에 나섰는지, 그리고 교섭의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었다. 사명당 유정의 파견은 일본의 수뇌부를 분열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으나 이 부분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명과 일본 사이에 진행 중이던 강화교섭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여 조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전쟁 후 조선과 에도막부의 강화회담에 적임자로 선발되어 두 나라의 국교가 맺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1부의 마지막은 강화교섭 전개와 파탄에 관한 글이다. 강화교섭이 시작된 이후, 히데요시는 전쟁을 처음 계획했을 때와 같이 원대한 목표를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교섭이 진행되면서 조건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논의의 핵심은 그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며, 무엇에 만족하지 않아서 다시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있다.²⁾ 현재 학계에서는 히데요시가 조선의 영토를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재침을 감행했다는 학설이 대표적이다. 이 ‘영토론’에서는 그 영토가 조선 전역인지, 일부인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요구한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 외에 학설로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무역 장악 욕구 등이 있다.

저자는 명측이 일본군을 조선에서 모두 철수하라고 요구하여 히데요시가 교섭을 결렬시켰다는 견해, 즉 영토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의 영토론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히데요시는 당당하게 시작한 침략전쟁이 수포로 돌아가고 국내의 정세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당시의 전력으로는 전라도 지역을 비롯한 조선 남부 지역을 장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산 등 경상도 일부만이라도 차지하여 이를 발판으로 해외 무역을 주도하려 했던 것이라고 하였다.³⁾ 임진전쟁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히데요시의 조건이 축소·변형되는 양상을 면밀히 추적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일본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2)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섭 초기 제시했던 과대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는 데 그친 것에 분개하여 재침을 시도했다는 설은 에도시대의 창작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저자 역시 이를 지적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의 책봉을 받은 것을 분명한 사실로 규정했다.

3) 기존의 연구에서는 히데요시의 재침이 전라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은데, 저자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전력상 전라도를 포함한 조선 남부 4도를 점령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왕자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러 사료를 통해 볼 때 조선의 왕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부차적인 이유 내지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⁴⁾ 이 글에서도 드러나듯이 저자는 전쟁을 동아시아 국제질서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강화교섭은 저자의 전공분야이다. 학계에서는 하나의 학설을 만들어 낸 연구자가 이후 자신의 연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묵혀두는 사례를 간혹 목격한다. 그러나 저자는 새로운 연구 성과와 사료를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 이처럼 최신의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학설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 역시 후학들의 귀감이 된다.

4. 다시 일어난 또 다른 전쟁, 정유재란

제2부는 정유재란에 대한 세편이 글과 전쟁 중 정보전달에 대한 보론을 싣고 있다. 정유재란에 비중을 두었다는 사실에는 다

4) 본 서평의 필자가 정유재란 발발의 원인으로 ‘왕자론’을 제시했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의 부연설명 내지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필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미 실력으로 조선의 영토를 요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전제했다. 히데요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왕자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하여 전쟁 종결을 위한 ‘무대’인 후시미성이 파괴되고, 조선에서 보낸 통신사의 관직이 낮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히데요시는 자신의 체면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요구를 ‘왕자’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다만 명분상으로는 그가 줄곧 왕자를 요구했던 것처럼 비추어질 필요가 있었다. 교섭 결렬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선의 왕자가 오지 않아 교섭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히데요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필자의 견해는 히데요시가 처음부터 조선의 왕자를 원했으나 왕자가 오지 않아서 재침을 명령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두고자 한다.

시금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허황된 요구에 대해 명은 책봉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고, 그 사이의 간극을 명과 일본의 교섭 담당자들이 거짓으로 메웠다고 보았다. 그러나 바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의 연구에서는 강화교섭에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강화교섭 파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다면 다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똑같은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행히 최근의 임진전쟁 연구에서는 정유재란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전쟁에서 나타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제2장 「전쟁 재개와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의 협상」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6년 9월 강화교섭 결렬 선언을 한 이후,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전쟁 재개를 막기 위한 교섭을 했던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활동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사료와 조선 사료를 노련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히데요시의 재침 선언 직후, 전투 준비가 행해지는 동시에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교섭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결과가 ‘실패’였다고 할지라도 과정을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인과관계의 증거가 역사학의 의무라는 당연한 사실 외에도, 그 과정 자체가 사건의 앞뒤 시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야나가와 시게노부는 강화교섭 기간은 물론, 전쟁 이후에도 조선과의 교섭에서 일선에 위치했다. 그의 행동, 나아가 쓰시마와 일본의 언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인 정유재란 직전 그의 활동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임진전쟁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전쟁이었다. 수십만의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 아무런 잘못이 없던 조선을 침략하리라는 예상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처럼 이전에 없었던 일을 예측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정유재란은 달랐다. 강화교섭 내내 교섭 결렬과 전쟁 재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고, 강화교섭이 파탄에 이른 이후에는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수 있었다. 강화교섭 결렬에서 전투 개시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기 위해 정보수집에 힘을 기울였다. 정보를 얻기 위한 욕구가 전에 없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의 연구자로서 임진전쟁 시기의 정보에 주목한 최초의 연구자이기도 한 저자는 대표적인 연구인 보론 「전쟁 중의 정보수집과 전달」에서 조선의 정보 전달 방식과 실태를 다양한 정보 주체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정보 전달의 주체는 봉수와 파발, 역참과 같은 공식적인 것 외에도, 조보(朝報)를 통한 민간의 정보 전달, 그리고 잠상인 등의 활동에 의한 첩보 형태도 있었음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전쟁 중에 공식적 정보 전달 방식이 무너지기도 하고, 전달되는 정보 중에는 부정확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실수를 반성하며 끊임없이 시스템의 재건을 꾀하면서 대안도 도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의 정치·사회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안일함에 젖은 조선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는 자조적인 평가에 대한 반론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3장 「히데요시의 사망과 조·일 교섭」은 시간적으로 전쟁 마지막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전쟁이 종결되었다”를 이야기하기 위한 글은 아니다. 히데요시의 죽음을 전후한 시기, 다시금 ‘소문’이 들끓기 시작했다. 히데요시는 말년에 이르러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사망 이전부터 사망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히데요시 병사 정보가 생성·전달되는 방식과 소문에 대한 조선의 반응을 살펴보고, 나아가 실제 히데요시 사망 후 일본군 철수 과정에서 조선

이 보여준 대응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저자는 히데요시 병사 풍문 중에는 전투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일본군이 명과의 강화교섭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선은 이를 파악하고 방비에 주력했다고 한다. 히데요시 사후 일본군 철수시에도 조선은 철수 병력이 내전에 동원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후 전해진 정보를 통해 히데요시 사망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제2부가 「자연재해와 정유재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인류 역사의 크고 작은 전환점에 자연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1장 「도요토미 정권기의 자연재해와 대외관계」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도요토미 정권기 사건 사이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당시 빈발했던 지진에 주목했는데, 그 중에서도 1596년 책봉사와 통신사 접견 직전에 발생한 후시미 대지진은 교토라는 정치 중심지에서 발생하여 파장이 컸다고 보았다. 저자는 ‘히테쓰구 사건’에 이어 지진이 일어났고 명과의 교섭마저 결렬되자 히데요시 정권에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조선 재침을 감행한 것으로 보았다. 강화교섭과 지진의 관계에 관해 한일 학계에서 진행된 일련의 연구 등, 새로운 연구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우리 학계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5. 전쟁의 종결과 남겨진 이들

이 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3부와 4부가 전쟁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제3부에서 정권 대 정권 차원의 외교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제4부에서는 수면 아래의 존재들과 전쟁 이후 만들어진 기억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쟁사는 전투만으로 완결될 수 없다. 나아가 전쟁 이전의 어떤 사실이 전쟁으로 이어졌는지, 전쟁이 전쟁 이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검토해야만 전쟁사를 온전히 재구성할 수 있다. 조선이 안이함에 젖어 전쟁을 자초했다거나, 전쟁 이후 명은 청으로 교체되고, 도요토미 정권은 도쿠가와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조선만은 국가가 유지되어 일신의 기회를 놓쳤다는 식의 단순명료한 ‘총평’은 역사를 역사적으로 평가하려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앞에서 전쟁 원인론과 강화교섭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쟁 이후의 관계사에도 검토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3부의 1장은 조선과 일본의 새로운 정권인 에도막부와의 국교 재개과정을 살피고 있다.⁵⁾ 여기서는 특히 에도막부와 쓰시마의 입장을 전쟁 직후부터 임진전쟁 이후 조선이 최초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국교가 성립하는 시기까지 각 단계별로 자세히 검토하였다. 국교 재개 과정에는 에도막부와 쓰시마가 적극성을

5) 이 교섭을 거쳐 조선과 국교를 맺게 되는 일본의 정권은 에도막부이며, 에도막부의 쇼군은 도쿠가와 기문이다. 이전에 조선과 관계를 맺었던 무로마치막부가 아니며, 도요토미 정권도 아니다. 따라서 이를 국교 재개로 봐야할지, 국교 성립으로 규정해야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조선이 ‘일본 국왕’과의 대등한 관계를 원했고, 그 근원이 무로마치막부와 관계라고 본다면 ‘재개’라는 용어도 사용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가지고 조선에 접근하고 있었다. 일방적인 침략으로 피해를 입었던 조선으로서는 일본측의 접근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교 재개 과정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측의 논리와 명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조선이 무력하게 대응했다는 논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내 권력을 장악해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성 완공 시기를 기점으로 대내외적인 선전 효과를 위해 통신사 도래를 성사시키고자 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의 사정을 정탐하고 전쟁을 마무리 짓고자 한 조선과 명의 조·일 관계에 대한 불간섭 기조 등 세 가지 배경이 국교재개 과정에 종합적으로 연동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일본의 지속적인 국교 재개 요구에 대해, 조선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선릉과 정릉을 파헤친 범릉적(犯陵賊),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國書)였다. 조선은 현재 일본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맞는지, 그리고 그가 국교 재개 교섭을 이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교섭의 끝자락에 조선에 도착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의 진위 여부는 한일 양국 학계의 큰 논쟁점 중 하나이다. 논쟁의 이면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가 진서라면 일본이 먼저 굽히고 들어간 것이고, 위서라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답서인 조선국왕이 국서를 먼저 보낸 것이 되니 일본이 면을 세우게 된다는 해석이 놓여있다. 그러나 양국 학계의 자존심과 별개로,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역관 손문욱이 나선 교섭 일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한편, 이에야스의 정치적 입장과 당시 일본의 외교문서군을 확인하여, 이에야스가 ‘국서를 먼저 보내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일본의 정권 장악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기 위한 이에야스에게 국서 작성과 범릉적을 잡아 보내는 일은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강과 안전을 되찾으려는 조선’, ‘막부정권의 계승과 안정을 국내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일본’, ‘더 이상 조선과 일본의 강화교섭에 관련하고 싶지 않은 명’이라는 세 나라의 입장을 함께 보여주며 논리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4부는 임진전쟁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피로인 문제, 조선에 투항한 일본군인 항왜에 대한 고찰, 그리고 에도 시대 일본의 히데요시 인식에 대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피로인(被擄人)은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로서, 대개 민간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이들을 지칭한다. 일본군은 임진전쟁 전 기간에 걸쳐 조선인을 납치했으며, 특히 정유재란 때에는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납치가 이루어졌다.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다행히도 돌아올 수 있었던 이들이 남긴 여러 기록을 통해, 그리고 에도막부와 국교 재개 후 통신사가 쇄환(刷還)해 온 이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 피로인의 규모와 그들의 인생 역정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피로인이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잡혀갔는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조선의 자료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점이 있다. 저자는 일본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함께 조선의 사행록을 비교 검토하여, 납치 목적 및 규모, 거주했던 지역, 그리고 그들의 귀환까지 살펴보았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역사를 애석하게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과 결과까지 꼼꼼히 재구성해내는 것이 역사학의 역할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한다.

피로인의 반대편 어딘가에는 항왜(降倭)가 존재한다. 물론 항왜는 대개 전투요원이나 기술자로서 조선에 투항한 이들로, 민간인을 강제로 끌고 간 피로인과는 그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

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 역시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 「투항한 일본인 항왜降倭」에서는 항왜가 발생한 배경과 그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반응을 살핀 후, 항왜가 이후 어떤 운명을 겪게 되었는지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항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 부족, 노역 동원에 시달린 일본군이 투항하면서 시작되었고, 정유재란 때에는 염전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항왜가 속출했다고 보았다. 항왜는 처음에는 철포를 제조하거나, 군사 기술을 전수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수가 늘어나면서 군사로 편입 되어 일본군과 전투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이들은 신뢰할 수 없는 이들로 여겨졌다. 따라서 전쟁 이후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다. 이들을 북방 변경에 두고 활동에 제한을 두려했던 조선과 조선인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항왜 사이의 갈등은 ‘이괄의 난’에 일부 항왜들이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저자는 일본에서도 항왜 자손의 쇄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흔치 않은 흔적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조선에 남은 일본인들의 송환을 요구한 바가 있는지, 일본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부의 마지막은 「에도江戸시대 히데요시에 대한 인식」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다른 글로 느껴질지 모르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은 갈등의 역사이다. 그리고 갈등은 관계의 한 양상이기도 하다. 전쟁에서 전투와 교섭이 병행하듯이, 관계에서는 우호와 갈등이 함께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떠한가.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시대의 필요에 따라 역사는 폭력적인 행위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역사가 가장 피해야 할 활용처이다. 이 글에서는 에도시대

초기 유학자들의 시각에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던 히데요시상에 17세기 말에 이르러 서민 영웅적인 이미지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해방(海防) 문제가 대두하던 18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해외 정복전쟁으로 이해하고 동조하는 상황이 벌어져 궁극적으로는 해외팽창론과 연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결말은 ‘히데요시가 미처 이루지 못 했던 역사의 재현’이었다. 저자는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칭송하고 그에게 영웅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은 에도시대부터 잉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갈등 일로를 달릴 때,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잘못된 해석을 경계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역사학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종장 「명분 없는 전쟁의 종결」은 이 책의 대단원이다. 저자는 여섯 가지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임진전쟁의 원인과 목적은 히데요시의 개인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일본의 국내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전쟁 기간 중 5년 이상은 일본과 조선, 일본과 명 사이에 강화교섭이라는 외교전이 진행되었으며, 강화교섭을 살피는 것은 외교의 실상과 정유재란의 발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셋째, 조선 지배를 부정당한 히데요시가 정권 유지를 위해 강화교섭을 과국으로 몰고 가 전쟁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넷째, 1596년 후시미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정유재란 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정유재란 발발의 배경에 히데요시가 조선의 경상도 지역을 확보하여 국제 무역을 재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여섯째, 전쟁 후 조선과 일본(에도막부)가 조속히 국교를 재개한 배경에는 양국 모두 정권의 안정이 필요했다는 점과 명의 불간섭 기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임진전쟁 연구는 삼국이 모두 자국사의 범위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지향과 관련해 새롭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전쟁시기 삼국의 사료를 집대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을 남기고 있다. 이 책으로 모아진 성과들이 그러한 문제의식과 그에 입각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하다. 우리 앞에는 더 늦기 전에 연구자들의 의지와 힘을 모아 다음 세대를 위한 비옥한 연구의 기반을 남길 의무가 놓여있다.

임진전쟁에 대한 저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면 책을 펼쳐 내용을 살펴보자. 이 책이 우리의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료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시간적·공간적으로 이 전쟁을 폭넓게 통찰하고 있는지. 만약 이를 충족한다면 옥에 가까운 저작일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임진전쟁 연구가 다다른 지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저작이다. 자국의 일부 사료만으로, 그리고 일방적이거나 극단적인 해석만으로 전쟁 전체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일각에, 자각과 반성을 호소하는 효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분야의 연구자 및 전쟁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그리고 외국 학계의 연구자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